

2019 년 12 월 22 일 "(성탄예배)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탄생"(눅 1:28-38)

<도입>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성도가 거듭납니다. 이 구원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수님 탄생으로 시작하여 이 세상에 열린 새 생명의 시대를 개관하겠습니다.

[1] 성령으로 잉태하심

본문: 30-33 절. 천사의 수태고지(예수님의 잉태를 알림)

34 절 –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35 절 – 천사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쌀 것이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도 10 대 나이의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지만 그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고백의 근거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감쌀 것이라는 말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출생을 초자연적 방법으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주님의 행위가 내게 임한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창조 때 자연법칙이 존재하기 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창조의 연장선 위에서 피조계에 작용하는 과학적/이성적 법칙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 후까지

ppt 슬라이드를 통해서 볼 때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크게 4 개의 범주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주신 생명, 주님이 순종하며 사시고 죽으신 죽음 위에 부여한 부활 생명, 오순절 120 성도들이 교회로 탄생하게 한 생명, 그 후 성도들의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

성령께서 하신 일은 생명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는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도 성령의 역사임을 믿을 수 있을까요? 둘 다 초자연적 역사로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새 하늘/새 땅의 생명의 완성을 실재로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 주심을 경험했다면 생명의 완성도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생명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구약 창조 사건에서부터 보게 됩니다(**창 1:2**). 그리고 대표적으로 선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겔 37 장 성령이 마른 뼈에 생명 주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예수가 존재할 수 있게 한 크리스마스 사건은 우리 모두가 새생명을 부여 받는 구속역사의 첫 단추가 됩니다. 예수 탄생 – 죽음 후 부활 – 교회 탄생 – 성도의 거듭남은 크게 '성령의 생명 주심'의 한 unit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를 믿지 못한다면 구속의 역사를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 안에 잉태된 역사적 사실은 신학적, 성경적으로 안목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사실이나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생명주심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는 신학적 해석과 결합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성령의 역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의 완성의 측면을 더 실질적으로 믿게 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시작으로 한 구원 역사는 성령 안에서 현재 이 수준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하늘 새 땅을 향해 가는 길은 (1) 생명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2) 성령이 주신 생명을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고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거듭나게 하고 늘 새롭게 하시며 그 생명 속에서 산 소망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아기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올해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나는 예수님이 사신 생명의 본을 어떻게 따르고 싶습니까?